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례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32:7-11. 13-14	제2독서	티모테오1서 1:12-17	복음	루카 15:1-32
--------	------	--------------------	------	----------------	----	------------

◎말씀 < 믿는 이들의 본보기 사도 바오로 >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믿는 이들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도 우리가 순례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권고합니다. 그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스스로의 잘못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 가운데 첫 째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오로가 자신의 잘못을 지나칠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듣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더 친밀감을 느끼게하고, 바오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오로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기울게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인간적인 장점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용맹함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쓰레기로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자신이 겪는 수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오로는 언제나 자기가 한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회개한 이후 바오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자신을 본받기 바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런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요체는 바오로처럼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함으로써 얻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죄인의 회개를 통해 드러난다는 진리를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로 들려줍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을 다시 찾은 목자와 부인이 기뻐하듯이 하느님께서도 회개한 죄인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지가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뿐만아니라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아들처럼 하느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바오로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로 확신합니다. 우리도 바오로처럼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하여,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잘못을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셨다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생활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집안을 청소하듯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나주)	
9월 17일 (화)	연중 제24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3,265.00 \$ 1,246.00
9월 18일 (수)	연중 제24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290.00 \$ 90.00
9월 19일 (목)	연중 제24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70.00 \$ 111.00
9월 20일 (금)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2차헌금 주일학교	\$ 722.00 \$ 1,580.00
9월 21일 (토)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오후7시30분	추석합동위령미사 합계	\$ 2,285.00 \$ 9,659.00
9월 22일 (일)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9명 성인: 211명
교무금 봉헌자	문홍식(1-12월)김순녀. 최준규(9-10월)김진태(8-9월)봉창의(5-6월)김계숙(7월)최이주. 안기창(8월)우순이. 박원상. 구준모. 박을생. 허형. 김상돈. 윤태옥. 김규태. 지복원. 이수동. 백정심. 박용호. 엄용덕. 장대석. 김길록. 이은로(9월)염상보(10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느님과 친교로 인도된다.” - 프란치스코교황 9월1일 연중제22주일 가르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 바리사이파 지도자 중 한 사람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서두르는지 관찰하십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보이는 행동입니다.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윗자리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위를 향해, 올라가려고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애를 병들게 하고, 해를 입힙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짧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루카 14,8-9)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루카 14,10)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배려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배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의 길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길이고,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겸손한 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사람에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선택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루카 14,13-14)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4) 이 말씀은 그와 같이 행동 하는 사람이 인간적 보답보다 훨씬 뛰어난 신적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네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겸손한 관대함입니다.

사실 인간적 답례는 통상적으로 관계를 왜곡시키고, ‘계산적’인 관계로 만들며, 관대하고 무상적이여야 하는 관계 안에 개인적 이익을 끌어들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훨씬 더 큰 기쁨을 향한 길로 우리를 열어 주시기 위해 사심 없는 관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기쁨은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 모두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피조물 중 가장 겸손하고 높으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다시 말해 보잘 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탈리아/박모란.글라라/원혜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장달원,이남순,장호연베드로의 영혼	장비안네	생	진엘리사와 진토니이 영육간 건강	임그라시아
연	이성순.성락순요안나,이명호안셀모의 영혼	정베르노	생	안선미.미카엘라의 영육간 건강	성령기도회

간 장 종 지	◎한 마리 양◎				
	내 옆에	그리고 앞에 뒤에			
	그래도 보지 못하는	한 마리 양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p>성명: 전노아 출생일자: 2019년6월 18일생 가족관계: (부) 전기주.안토니오 (모) 양지연.이냐시아 (형) 전재민.미카엘 구역: 8구역</p>	<p>김청남.요한 고정자.요세피나 (이상 3구역)</p> <p>이의웅.베드로 이경임.루시아</p>
---	---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리노공소 미사
일시;22일(일)오후3시.성당에서 출발
참여단체:꼬미시움.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꼬미시움:15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22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3.본당 재정보고
일시:15일(일)교중미사중
내용:2018-19년 결산및 2019-20년 예산보고
- 4.본당의날 행사 결산보고
총수입:\$2,155(후원금\$1,600/라플\$555)상품
총지출:\$2,550.33(음식재료.상품)
순손실:\$395.33
- 5.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0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신 프란체스카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6.청년회 피정
일시:21일(토)-22일(일) 장소:Lake Tahoe
문의:최스텔라(카톡:steljchoi)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해요.
도네이션:익명(\$100)최응철(\$100)
사회복지부(\$100) 감사해요
- 7.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 후원위한)
일시:10월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Golf Shoe Bag 8개)봉창의(Ping Putter \$200)이종만(트로피 \$400)엄유경(샌드 웨지)송돈희(Range Finder)좌응철(물비누4개 Ball Marker 10개) 감사해요

- 8.어린이(학생) 미사시간 변경
매주 일 오전9시→매주 토 오후5시(영어미사)
9월 28일(토)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오전9시 미사는 그대로 있으며
토요특전미사는 오후5시로 변경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9.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일시:10월12일(토)오전8시-오후1시.성당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익명(\$100)
이재덕(\$200)감사해요.
- 10.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신청 및
장례준비절차 상담안내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 11.감사합니다
본당의날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행사부와 식사 봉사위해 수고하신 여성부와 도움주신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등록 및 접수
기간:28일(토)까지.미사전후 성당
주일학교 개학:28일(토)오후3시.성당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바래요.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장

- 식사봉사(이번주);7구역 보조:최응철.송돈희
식사봉사(다음주);행사부 보조: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전례봉사	연중제24주일(9월15일)	연중제25주일(9월22일)	연중26주일(9월29일)	연중27주일(10월6일)
해설	오민정.크리스티나	김은선.제노베파	최금주.요안나	김선영.플로라
제1독서	구준모.요한	최범진.아브라함	최범진.아브라함	양경민.안드레아
제2독서	김준희.키아라	박명혜.엘리사벳	박명혜.엘리사벳	양방림.베로니카
복사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김규철.최준우	최진호.이상은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류정임.나송희	임상일.박병수.안혜숙	고원석.윤재경.안강순